

NH농협금융 차기회장 오늘 선출

‘사상 최대실적’ 김광수 회장, 연임에 무게

NH농협은행장, 20일 최종후보 확정
농협금융, 작년 당기순이익 1조7796억
2년 연속 1조원대 당기순이익 달성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NH농협금융지주가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17일 연다. 현 김광수 회장은 취임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데다 경쟁자로는 아직 이렇다할 하마평 조차 없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식이 된 NH농협은행장은 오는 20일께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17일 첫 임추위를 열고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농협은행장 선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임추위는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연임 가능성

을 높게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하마평에 비중있게 오르는 다른 인물도 없는 상황이다. 일단 경영성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연임이란 안팎의 분석이 나온다.

농협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779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나 급증했다. 지난 2012년 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사상 최대치며, 전년 1조2189억원

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또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매년 지출하는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당기순이익은 2조693억원으로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자산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농협금융의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63%로 전년 말 대비 0.28%포인트 개선됐으며,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7.22%로 전년 말 대비 9.95%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함께 임기 동안 농협금융지주의 100%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는 점도 연임 가능성을 높인다. 농협금융 회장 가운데서는 전임인 김용환 회장이 1년 연임을 기록한 바 있다. 3연임 사례는 아직 없다.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의 후임도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농협금융은 지난 4일 은행장 신규 선임을 위한 임추위 일정을 시작했다. 농협금융 임추위에서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최종 후보자를 농협은행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기 행장 후보로는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을 비롯해 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을 지낸 이창호 NH선물 대표, 오병관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준행 위원장과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인 손병환 농협금융 부사장, 정재영 비상임이사까지 총 6명이다. 다만 손 부사장은 행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임추위에서는 빠지게 됐다. 행장을 선임하는 농협은행 주주총회가 이미 오는 24일로 잡힌 만큼 20일께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예금보험공사

올 하반기 100여명 채용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전문직, 체험형 인턴 등 약 100여명을 채용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6일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은 공개경쟁으로 30명 내외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필기전형은 모든 채용직렬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기초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과목(객관식)을 별도로 신설하고, 필기와 목별 배점을 조정한다.

자격증 가점의 경우 업무 관련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CFA(Iv3), IT 관련 기술사 등)에 대해 필기전형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 선정방식은 필기 점수와 2차 면접점수를 합쳐서 선발한다. 체험형 인턴은 3회에 걸쳐 60명 내외로 채용(회당 20명)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1월말 銀 대출연체율 0.41% 연체채권 잔액 8000억 늘어

금감원 “전월비 0.04%p 상승”
주담대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 ↑

은행의 대출연체율이 석 달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1%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5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규모 7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8000억원이 늘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

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 말 대비 0.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높아졌다. 연체율은 개인사업자대출 0.33%, 중소기업인 0.70%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4%포인트, 0.1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47%로 집계됐다. /안상미 기자

캐롯손보 퍼마일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캐롯손해보험은 퍼마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2종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1일 손보협회에서 열린 심의에서 캐롯손보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위험 담보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등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새로운 위험 담보 부문에서는 택시요금과 같이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km당 위험담보 요율체계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 부문은 캐롯플러그를 통한 운행정보 자동 수집으로 프로세스 간소화, 긴급구조 서비스(e-call) 등 신규보상서비스와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행거리·보험료 실시간 제공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인정이다.



앞서 캐롯은 지난 2월 퍼마일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특허청의 BM(Business Model) 특허를 받았다. 특허를 받은 발명 명칭은 자동차 트립 정보에 기초한 보험료 자동 산출 시스템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시장과 고객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속해서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대한 경험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희주 기자 hj89@

꿈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꿈은 작은 첫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DB가 당신의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

